考古資料로 살펴 본 元과 耽羅*

金慶柱**

Ⅰ. 머리말
Ⅱ. 法華寺 重創과 避難宮殿의 造成
Ⅲ. 元 王族과 移住民의 生活
Ⅳ. 耽羅 香樟木의 搬出과 元式 建築物의 築造
Ⅴ. 맺음말

국문요약

1273년 삼별초 평정후 제주에는 원나라 군사가 주둔하고 官人과 牧人 등이 대거 이주하면서 다양한 元式文化가 도입되기 시작한다. 먼저 법화사는 1269년 중창을 시작하여 원왕실의 도움으로 1279년 완공되었다. 원왕실의 적극적인 중창 개입은 남송과 일본 정벌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종교적 기원처이자 願刹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화사에는 매우 이국적인 특수건물지가 세워졌는데 정교하게 가공된 석재와 원나라 형식의 기와를 얹어 조성하였다. 이 건물은 원나라 왕실 건축 기술자들이 제주에 입도하여 축조한 元式 건축물에 해당하며 元順帝의 피난궁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왜냐하면 특수건물지에 사용된 龍鳳文 막새는 원의 瓦匠에 의해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을 상징하는 유일한 문양이기 때문이다.

제주 서남부 지역은 원과의 물류수송을 위한 포구가 위치하고 있고 원왕실의

---

* 본고는 제37회 한·몽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하였다.

** (재)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수요가 많았던 香樟木의 최대 군락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게다가 이곳은 원나라 이주민과 원왕실 후손들의 유배지로도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강정 대궐터와 주변 지역이 바로 그들의 생활 터전이었으며 인접한 하원동 왕자묘는 伯伯太子 일행의 분묘일 가능성이 높다.

법화사를 중심으로 하는 서남부 지역은 원나라가 동아시아의 영토확장을 위한 군수산업기지와 물류생산지로 활용하였다. 이로 인해 원나라 이주민들의 據點聚落이 형성되었고 원순제의 피난궁전이 축조되기도 한다. 원이 멸망한 후에도 왕실 후손들의 유배와 이주민들이 유입됨에 따라 考古學的 원식문화가 지속적으로 잔존하게 된다.

주제어 : 원식문화, 특수건물지, 백백태자, 거점취락, 대궐터.

Ⅰ. 머리말

濟州와 元의 관계는 역사, 민속, 언어, 생활상 등에서 상호 문화적 상사성이 다수 간취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는 대원제국이 약 1세기 동안 제주를 직할령으로 두고 지배를 했던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1273년 대몽항쟁을 이끌어 온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 패해 소멸되면서 제주에는 원나라 군사가 주둔하고 耽羅國招討司를 설치하여 직할령으로 삼게 된다. 이후 대략 1세기 동안 원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국립목마장이 조성되고 많은 말을 양산하는 군수산업기지화되는 한편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군사적 전초기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원의 입장에서는 당시 耽羅[1]가 동아시아 지역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지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있었다.

당시 군사적 요충지였던 제주에는 원나라의 군사와 官人, 牧人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 이주하거나 또는 죄인들이 유배되는 곳이었다. 이들 중에는 제주인과 혼인관계를 통해 토착화되기도 한다.

1) 원간섭기 고려(제주)와 원(탐라)에서는 각각 別稱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한다.

따라서 그들이 남긴 원나라의 物質文化가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더불어 제주의 몇몇 큰 사찰에는 원왕실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과 구전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원에서 제작된 阿彌陀 三尊佛像[2]의 법화사 안치는 원나라 불교문화와의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元式文化[3]의 유형적 잔존물인 고고학적 유적과 유물을 통해 살펴보고 그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원나라 왕실과 관련된 법화사의 중창, 元順帝의 피난궁전 조성, 원 왕실의 移住와 분묘 조영, 元式 건축물의 축조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당시 원식문화의 양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Ⅱ. 法華寺 重創과 避難宮殿의 造成

1. 法華寺의 重創

法華寺址는 발굴조사 결과 출토된 「至元六年己巳始重刱十六年己卯畢」銘 기와[4]를 참고하면 지원6년(1269) 중창을 시작하여 지원16년(1279)에 완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명문와를 통해 법화사가 1269년 이전에 이미 창건되었고 이때 중창을 시작하여 10년만에 완공했다는 점을 엿볼수 있다.

법화사 중창이 진행되는 동안 삼별초가 제주로 옮겨 대몽항쟁을 지속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1270~1273년까지는 구체적인 공사진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삼별초가 토벌된 직후인 1273년 4월 이

2) 삼존불은 명나라의 영락제가 왕실 개인의 원찰이었던 천희사(이후 대보은사로 변경)로 옮겨 안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朴現圭, 제주도 法化寺三尊佛像과 南京大報恩寺의 관계, 중국사연구 제58집, 2009).

3) 본고의 元式文化는 제주지역에서 확인되는 원의 물질문화를 통칭하여 부르고자 한다.

4) 지원명 기와는 양양읍성 출토 大德三年(충렬왕 25년, 1299)銘 기와의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정주, 「高麗時代銘文平기와의 樣相과 地域性」,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5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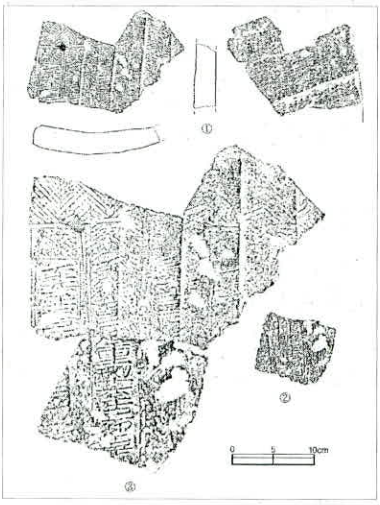

그림1) 법화사지 출토 중창명 기와

후부터 다시 시작되었을 것이다. 1273년부터 원나라 군사가 주둔하고 탐라국초토사를 설치하였으며 1275년에는 다루가치가 파견된다. 이러한 맥락을 참고하면 법화사의 중창은 동시기 원 세력과의 연관성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도자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2세기 중반 창건된 이후 13세기 중반까지 가장 번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미, 2013 :168~173). 이미 중창 이전에 법화사는 제주도에서 큰 중심 사찰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중창을 시작하는 13세기 후반에는 오히려 법화사의 전성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원명 기와의 중창연대와 출토유물의 상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5]가 필요하다.

고려 왕정은 쿠빌라이칸의 원찰 성격을 갖는 사찰 조성을 위해 법화사 중창[6]을 추진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김일우, 2002). 더 나아가 원왕실의 원찰 기능뿐만 아니라 원순제의 피난궁전으로 사용되었으며 탐라에 거주하던 몽골족의 본거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바드만양보, 2012). 반면 쿠빌라이칸의 공주이자 충렬왕비인 코톨록-카이미시의 원찰이며 개성 법화사와 연관성이 있다는 주장[7]도 제기

5) '重㮈十六年己卯畢'銘 기와(1호건물지, 1992년)는 포목흔이 확인되지 않지만 '至元六年己巳始'銘 기와(폐와무지, 1997년)는 포목흔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동일 기와가 서로 다른 제작수법을 보이고 있는 점도 문제지만 너무 동떨어진 곳에서 각각 출토된 점도 의문이다.

6) 6척이 넘는 대형 삼존불을 원에서 직접 제작하여 법화사에 모셨다는 점에서 고려와 원이 함께 중창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정병삼, 「탐라불교의전래와보급」, 『탐라사Ⅱ』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2010, 627쪽).

7) 충렬왕과 쿠빌라이의 딸이 혼인한 것은 1274년으로 본격적인 중창을 시작하는

되고 있다(박원길, 2013b). 또한 원왕실의 원찰로 조성하기 위해 중창하였고 직할령인 제주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곳으로 파악하기도 한다(오상학, 2010).

어쨌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법화사 중창을 원왕실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에는 중창시기가 원의 간섭기에 해당하며 법화사의 특수건물지를 중창시기의 건축물로 규정하여 지붕에 얹은 원식 막새기와[8]를 그 근거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강창화, 2000).

한편 법화사 중창이 완료된 1279년은 원나라 수도인 大都에 위치한 大聖壽萬安寺라는 사찰내에 서역식의 백탑이 건립된 해이기도 하다[9]. 이 백탑은 원왕실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기념물로 조영되었다. 하지만 쿠빌라이가 1276년 남송을 정벌한 후 그 지역의 불교를 정비하기 위해 티베트 승려를 파견한 것은 불교적 신앙보다는 정복 통치자로서의 정치적 위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주경미, 2009). 따라서 법화사의 중창 역시 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동일한 목적을 갖고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화사 출토 도자기는 12세기 중반~13세기 중반까지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운용문과 운봉문 막새기와는 형태적으로 볼 때 13세기말 원간섭기에 이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시기적 차이를 보인다(서창호, 2010:173). 삼별초 토벌기간 중에 서남해안 수운이 타격을 입어 곤란을 초래한 점으로 보면 1270년대 초반은 고려 요업에서 오히려 난관이 많은 시기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원나라 문물이 도입되고 고려 자기의 조형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1300년 이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장남원, 2009:212). 그렇다면 원식기와의 이입시기 역시 14세기 전후로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시기와 맞물린다.

8) 특수건물지에서 출토된 운봉문 수막새와 운용문 암막새는 몽골 콩두미궁전의 출토품과 유사하고 중국 절강성 관요에서 제작된 원대 백자가 유입된 점으로 미루어 원왕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강창화, 2000, 「濟州法華寺址의 考古學的硏究」, 『濟州島史硏究』 第9輯, 濟州島史硏究會, 2000, 30-31쪽.).

9) 백탑의 건립은 1271년 착공하여 1279년 완공되었는데 불교를 수호하는 제왕의 권위를 입증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주경미, 「쿠빌라이 칸과 대성수만안사의 백탑」, 『미술사와 시각문화』 8권,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9, 75-7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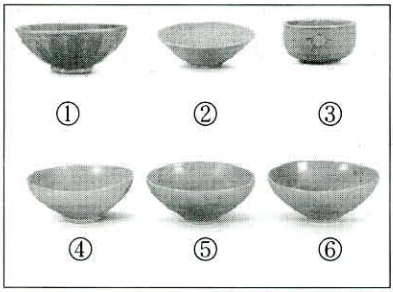

사진1) 법화사지 도자기
(① 송대 ②~⑥ 고려청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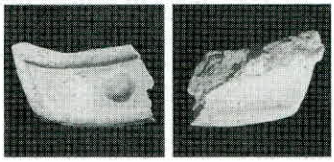

사진2) 일휘문 암막새(수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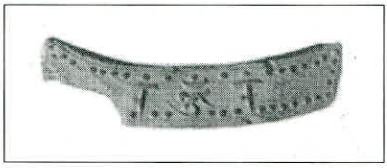

사진3) 범자문 암막새(법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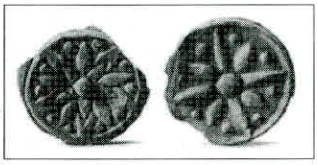

사진4) 연화문 수막새(법화사)

법화사에서는 일휘문 막새기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고려전기에는 사찰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국가적으로 관심 밖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10]. 이러한 사실로 본다면 1269년 중창이 시작된 이래 원나라의 개입으로 번창했다는 것을 쉽게 추정케 한다. 요컨대 법화사는 12세기 중반경 창건된 후 13세기 중후반 전성기에 중창을 거쳐 노비가 축소되면서 사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하는 15세기 전반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魚骨文(樹枝文)계열의 복합문 기와가 주로 출토되고 淸海波文[11]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더라도 15세기 이전에 이미 사찰의 위세가 크게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

10) 궁궐이나 사원 등 국가적 지원을 받아 조영된 건물에는 대부분 일휘문 막새를 사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최문환, 「파주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49쪽.).

11) 어골문 기와는 15세기 중엽경 대부분 소멸하고 청해파문이 조선시대 전기간에 걸쳐 유행한다(김경미, 2011, 전남지방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다(濟州大學校博物館, 1997a).

원주 법천사지의 경우 3기(13세기 후반)에는 복합문이 증가하며 또한 장판타날과 포목흔이 확인되기 시작한다(金志允, 2008). 법화사 역시 어골문과 복합문의 점유율이 비슷하게 확인되는데 장판의 타날판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평기와의 생산은 충청지역도 13세기 이후 복합문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朴鍾鎭, 2011). 이로 보건데 법화사 역시 13세기를 중심으로 가장 번성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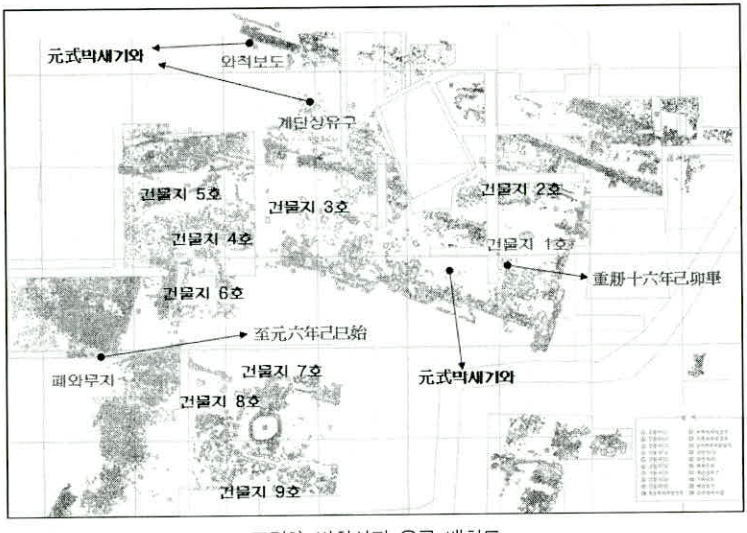

그림2) 법화사지 유구 배치도

주지하다시피 법화사는 1269년 중창이 시작된 이래 삼별초가 입도하면서 일시 중단되었다가 1273년 이후 다시 원나라의 주도하에 중창이 재개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법화사 중창이 완료될 즈음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명문와에 至元銘 연호를 사용한 것은 원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창 초기부터 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완공시점에 원왕실에서 개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컨대 원 세조가 직접 탐라의 토착세력인 성주를 불러 배를 건조케 함과 동시에 일본정벌을 꾀하였는데[12] 이러한 대역사가 무사히 성공적

으로 마무리되도록 기원하는 종교적 장소로서 법화사를 중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13]. 이전에는 법화사가 일반 사찰에 불과하였으나 중창 이후 裨補寺刹로 성장하였던 점도 궤를 같이한다.

이처럼 법화사는 12세기 중반경 창건된 후 1274년부터 본격적인 중창이 진행되어 제주도내 최대 사찰로 성장하게 된다. 특히 법화사가 대사찰로 성장하게 된 것은 일본과 남송정벌을 앞두고 원왕실에서 탐라를 전략적 교두보로 삼고자 했었기 때문이다[14].

2. 元順帝의 避難宮殿 造成

원순제가 피난궁전을 짓기 위한 기술자를 탐라에 파견하려면 적어도 고려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 즉 명나라 주원장이 1368년 대도 궁성을 침략하고 다시 1369년에는 상도 궁성까지 함락시킨다. 따라서 대도 궁성을 함락하기 이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홍건적이 1367년 상도 궁성을 침입하여 함락시키면서 원순제는 피난길에 올라야 했다.

법화사내 특수건물지는 기단석을 비롯하여 갑석, 면석 등 건축물 축조에 사용된 모든 석재가 정교하게 가공된 판석형 석재를 사용하고 있다[15]. 더불어 柱座刻圓 柱礎石과 함께 지붕에는 雲鳳文과 雲龍文 막새를 얹은 건물지(明知大學校博物館, 1983)로서 여타 건물과 전혀 다른 이국적인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건축물이 제주에서는 법화사내 특수건물지가 유일하다. 즉 일반 건물과는 다른 목적과 기능을 위해 축조된 특수건물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케 한다.

---

12) 1267년 탐라성주 양호가 원황제를 알현한 이듬해인 1268년 10월 원왕실에서는 일본 정벌을 위해 탐라에 배(1백척) 건조를 주문하였다.

13) 송·원대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이 안전 항해를 기원했던 사찰로서 법화사가 크게 번창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진한,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47-48쪽.).

14) 『元史』에 고려와 탐라를 병기하여 고려와 분리하고 직할령으로 삼고자 했던 것 역시 맥락을 같이한다(金九鎭, 1989:72).

15) 특수건물지의 기단부 역시 구지표면에서 대략 160~170㎝ 정도로 매우 높게 축조된 편이다. 따라서 건물지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매우 웅장하게 보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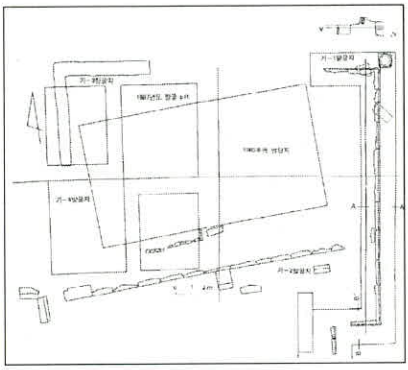

그림3) 법화사지 특수건물지 평면도

원나라 上都 宮城의 건물지 주초석을 보면 대체로 기저면은 방형으로 조성되고 주초를 얹는 상부에는 주좌각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서는 용무늬 막새가 확인되고 있다(魏堅, 2011). 고려 도성인 만월대에서도 역시 동일한 주좌각원 초석과 용과 봉황무늬 막새(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2012)가 확인된다. 따라서 당시 원과 고려 도성에 축조된 건축물의 주초석과 지붕에 얹었던 막새의 형태가 동일하게 제작된 셈이다.

제주지역에서 주좌각원 주초석이 확인된 곳은 법화사를 비롯하여 강정 대궐터와 대포 해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강정과 대포에서는 확인되는 숫자가 적고 용봉문 막새류가 출토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법화사내 특수건물지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수건물지 출토 용봉문 막새의 배면에서는 포목흔이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 고려시대 막새는 사자암지 출토 至治二年(1322)銘 암막새에서 처음으로 포목흔이 출현한다. 이처럼 법화사 출토 막새는 고려와 연관성이 없다. 그렇다면 주좌각원 주초석과 용봉문 막새를 얹은 건축물은 오히려 원나라의 건축기술이 접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헌기록과 구전을 참고하면 水精寺와 元堂寺 역시 원의 황후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동시기 법화사에 버금가는 두 사찰에서 조차 동일한 형태의 초석과 막새기와는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건물지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법화사내 특수건물지는 원나라 토목기술자들이 투입된 원식 건축물로서 곧 원순제의 피난궁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이 특수건물지가 법화사 중창과 관련된 건물이라면 당시 원나라 토목 기술자들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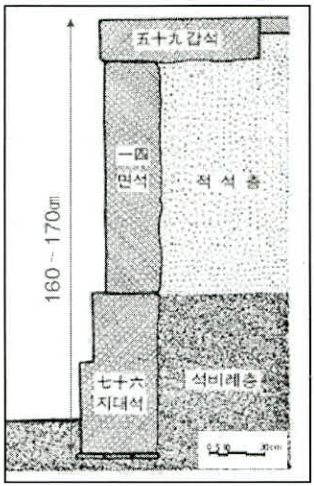

그림4) 특수건물지 기단복원(1983)

전술한 바와 같이 용봉문 막새의 배면에 포목흔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고려시대의 막새와는 연관성이 없다[16]. 따라서 이러한 원식기와는 원나라에서 제작하여 운반해오거나 아니면 현지에서 제작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법화사 출토 용봉문 막새는 고려의 양식이 전혀 이입되지 않은 원나라 양식임에 틀림없다. 이로 보건데 원순제의 피난궁전을 축조하기 위해 탐라에 파견된 목수 원세의 일행중에는 전문 와장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강화 선원사지는 무신정권 최고의 집권자 최우가 13세기 중엽경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굴조사 결과 봉황 혹은 용무늬가 장식된 막새는 확인되지 않는다(김유식, 2003). 따라서 이러한 무늬는 왕실을 상징하는 유일한 문양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반대로 양주 회암사에서는 왕실 문양의 막새가 출토되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17].

법화사지 출토 용봉문 막새와 異形瓦(주름무늬기와)는 모두 특수건물지를 제외하고 1호 건물지, 기와보도 그리고 계단상유구에서만 출토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따라서 3기의 유구가 동시기에 조성되었으며 특수건물지가 훼철된 후 지붕에 얹었던 용봉문 막새를 비롯한 기와가 재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중국의 암막새는 이면에 포목흔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주연부 凹線은 원대에 유행했던 표현기법이기 때문에 원나라 양식의 기와임에는 틀림이 없다(서창호 「고려말조선시대암막새의변천과정」『고고학』-1, 중부고고학회 2010.).

17) 회암사는 태조가 즉위한 후 왕사와 궁궐을 겸비한 왕실사찰이었다(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檜巖寺Ⅲ』2009, 4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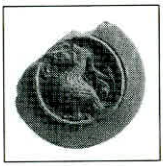
사진5) 고려궁성 수막새

사진6) 법화사 수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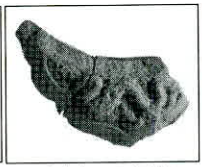
사진7) 고려궁성 암막새

사진8) 법화사 암막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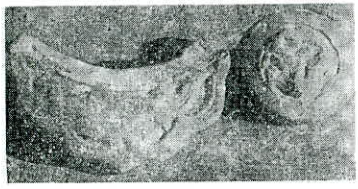
사진9) 원나라 상도궁성 출토 막새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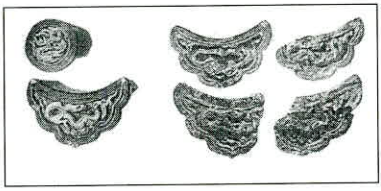
그림5) 콩두미궁전 출토 막새류

반면 후축된 瓦積步道의 바닥에 용봉문 막새를 깔아놓았다는 것은 이미 특수건물지의 기능이 소멸하였고 왕실의 권위가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원식 막새기와를 얹었던 특수건물지는 원의 멸망과 함께 원왕실의 영향력이 소멸되었으며 고려왕권의 교체와도 무관하지 않다. 왜냐하면 고려후기의 중앙정부는 원왕실과 혼인관계를 통해 駙馬國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었기에 설령 원이 멸망하였더라도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막새기와를 와적보도에 배치해서 밟고 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기 법화사지 출토 도자기를 살펴보면 이전 단계에 비해 질이 낮은 중하품에 해당(강창화, 2000:32)하는 점으로 볼 때 사찰의 위상 역시 크게 위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10) 법화사지 와적보도 노출상태

법화사내 특수건물지는 주좌각원 주초석과 용봉문이 장식된 막새기와를 사용한 이국적인 건물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건물지의 성격과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특수건물지는 여타 건축물과

전혀 다른 기능을 위해 축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크게 두가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는 사찰의 가람배치와 관련지어 볼 때 일반적인 건물지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화사의 금당지일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는 법화사내 축조된 건축물은 대부분 고려의 건축기술을 활용하여 조성된 반면 특수건물지는 원나라 기술자들을 동원해 조영된 이국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원순제의 피난궁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8] 왜냐하면 원식막새와 이질적인 초석 등은 원나라의 토목기술자가 직접 제작하고 건축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진11) 원 상도궁성

사진12) 개성 고려궁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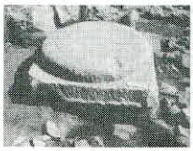
사진13) 법화사지

사진14) 강정 대궐터

특수건물지가 기존 건축물과 전혀 다른 축조방식은 물론이고 초석과 막새기와 등에서 이국적인 차별성을 보이는 것은 이 건물지의 조영주체가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는 고고학적 증거인 셈이다. 즉 특수건물지는 원에서 직접 파견한 건축 기술자에 의해 축조된 원식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물지는 원왕실과 관련이 있고 이는 곧 원순제의 피난궁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원순제의 피난궁전이 공민왕 16년(1367)부터 18년(1369)까지 2년 반 넘게 조영공사가 계획·추진되었다고 본다면(김일우, 2015:145) 특수건물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 건물지를 축조하는 과정에서 원나라 건축기술이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용과 봉황문이 시문된 원식기와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18) 김태능은 주좌각원 주초석이 사용된 점으로 미루어 사찰이 아닌 특수건물지에 해당하며 원순제의 피난궁전지로 추정하고 있다(金泰能,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 『濟州道 31호』, 제주도청, 1967, 433쪽).

표1) 원순제의 피난궁전 관련 문헌기록

연도	내용	출전
공민왕16년(1367)	원 황제가 제주로 피난하고자 하여 이에 御府의 금과 비단을 옮겼다	『高麗史』
공민왕18년(1369)	원의 목수 元世, 피난궁전 건축 중단하고 상경	『高麗史』

요컨대 특수건물지는 계획과 시공까지 모두 원나라 기술자들이 투입되고 원의 건축기술을 동원하여 축조된 원식 건축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의 왕실건축에 시공되는 건축양식을 활용하여 조영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원순제의 피난궁전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즉 원나라 왕실 건축기술자가 투입되어 축조된 유일한 건물지라는 점에서 볼 때 원왕실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원순제의 피난궁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Ⅲ. 元 王族과 移住民의 生活

1. 元 住民의 移住와 王族의 流配

여몽연합군이 삼별초 평정 후 원왕실은 고려에 공납을 요구하고, 일본 원정에 필요한 배를 건조케 하였으며 제주에 몽골 마을을 조성하여 몽골군을 주둔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간접적인 지배형태를 취하고 있었다(김장구, 2011:211). 이외에도 탐라에 설치된 官府에 관인들이 파견되었고 원의 군대가 주둔하기도 한다. 반면 1276년 수산평에 몽고말을 방목하면서 많은 목인 및 목축관련 기술자들이 제주로 이주하게 된다(박원길·S.촐몬, 2013). 이중 주둔군과 유배인은 대부분 원나라로 복귀했지만 목인과 관인은 제주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裵淑姬, 2012).

이처럼 원지배기 탐라에는 원나라의 다양한 주민들이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었다. 앞서 탐라에 몽골군을 주둔시키고 마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한 점으로 미루어 일정 지역에 이들의 집단적 거주 취락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술하겠지만 그 거점취락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제주 서남부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원에 朝會할 때

바람을 기다리던 포구(서귀포와 서림포)와 원 왕족의 유배지(강정동, 화순리) 그리고 원순제의 피난궁전(법화사)이 모두 서남부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또한 목호의 난 최후 항전지가 범섬인 점을 고려한다면 목호를 비롯한 몽골세력의 거점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원간섭기에 제주에는 많은 몽골인들이 이주하여 제주민과 함께 생활했다는 것을 미루어 추정케 한다[19]. 하지만 현재까지 이들이 생활했던 취락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구체적인 생활상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다. 다행히도 최근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강정동 대궐터에서는 14~15세기대 도자기가 주로 확인되는데 원나라 이주민들의 건물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나라 군사를 비롯한 목축과 관련된 각종 기술자들이 이주해 오게 되는데 원의 군사와 목인 등이 당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蒙古甁(褐釉四耳甁)이 제주도 각지에서 출토되는 점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20].

한편 1382년 명나라가 운남을 평정한 후 威順王의 아들인 伯伯太子를 비롯한 梁王의 家屬을 제주에 안치케 하면서 멸망한 원의 왕족과 그 일행이 대거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되었다. 이들은 기왕에 원나라 이주민이 취락을 형성하고 생활했던 곳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영과정에서 원의 멸망으로 활용되지 못한 원순제의 피난궁전을 이용했을지도 모른다. 즉 백백태자와 양왕의 가속들이 이주했을 당시 법화사 경내에 축조된 원식 건축물이 거주공간으로 제공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명나라 주원장이 원왕실의 후손들을 모두 제거하지 않고 탐라에 유배를 보내어 명목상으로는 왕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는 사실을 보면 추정이 가능하다.

강정 대궐터는 문헌기록과 그 명칭에서 비롯되듯이 원순제의 피난궁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하지만 법화사내 특수건물지와 비교

19) 제주에는 大元을 본관으로 하는 다양한 성씨가 남아 있는데 원나라 후손들이 제주에 정착하여 동화되면서 삶을 유지한 결과이다(김동전,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2호, 2007).

20) 이 병은 중국에서 韓甁이라고 불리며 군사용 물병으로 알려져 있다. 형태적으로 볼 때 중국 河北의 磁州窯와 江蘇의 宜興窯 가마에서 제작된 것이다(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2013).

사진15) 제주지역 출토 원의 몽고병

해 볼 때 원식 건축기술이 적용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왜냐하면 원왕실에서 직접 건축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피난궁전을 짓고자 한 것은 원순제의 강력한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원식 건축물이 조영됨이 당연하다.

이처럼 강정 대궐터는 원순제의 피난궁전이라기 보다는 원나라가 멸망 후 4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왕족의 유배 혹은 유민의 이주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명나라가 1388년 원에서 귀순한 達達親王 등 80여호가 거주할 주택을 탐라에 마련할 것을 고려에 요구하는 기사가 확인[21]되는데 아마도 기왕에 원의 이주민들이 거점취락을 형성하고 생활했던 제주 서남부지역에 정착토록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원나라 이주민과 관련하여 화순리 마을에 위치한 속칭'양왕자터(梁王子田)'가 양왕 혹은 백백태자와 그 일족의 거주지였다고 추정하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朴用厚, 1978:96). 만일 양왕의 가속들이 화순리를 배경으로 생활했다면 군산에 위치한 왕자묘는 이들의 분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식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제주지역에서 대궐터는 왕이 거처했던 궁궐이 아니라 관아 성격의 공공건물, 불교 사찰 혹은 특권계층의 저택 등과 같은 시설물이 위치했던 곳을 이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김일우, 2015b:15~16). 따라서 강정동 대궐터 역시 궁궐이라는 개념보다는 지역의 공공건물이거나 혹은 특수계층의 瓦家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제주도 여러 곳에 이처럼 대궐터라 불리는 곳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22]

원간섭기 이후 충선왕대 관영 수공업체계가 무너지고 민영화되면서

21) 『고려사』우왕 14년(1388) 12월 기사 참고.

22) 서귀포시 하례리(縣舍), 서홍동(현사), 강정동, 제주시 애월읍 항파두성 등이 있다. 즉 대궐터는 고려시대 이후 현사 혹은 관공서가 있었던 곳(기와건물)을 불렀던 것으로 해석된다.

관 소속 기와 장인들이 지역 토호세력의 개인 와장으로 이입되고 있다(이호경, 2008)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력계층의 와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요컨대 법화사내 특수건물지가 원나라 왕실건축이 도입된 순제의 피난궁전이라고 한다면 강정 대궐터는 원왕실의 후손이나 이주민들이 생활했던 곳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대궐터에서는 대체로 14~15세기대 도자기가 주로 출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왕실의 건축기술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의 백백태자 혹은 양왕 가속들의 거처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또다른 이주민들의 생활터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강정동 대궐터가 원래 가내방호소[23]가 위치한 곳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원순제의 피난궁전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2. 元 王族의 墳墓

원나라가 멸망하면서 왕족의 후손들이 명나라에 의해 탐라에 유배를 오게 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법화사를 중심으로 몽골족의 거점지역이었던 제주 서남부지역 특히 하원, 강정, 화순 등지에 집성촌을 형성하여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명나라 주원장은 위순왕의 아들인 백백태자를 탐라에 유배시킨 후 다시 양왕의 자손 愛顔帖木兒 등을 탐라에 보내어 같이 생활하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24] 따라서 이들이 탐라에 이주한 후에는 같은 곳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에 유배된 원나라 왕족들이 사망한 후에도 역시 주변에 무덤을 축조했으리라는 것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박용후는 하원동 왕자묘가 암석에 조각된 정교한 문관의 의관을 한 것으로 볼 때 양왕자 혹은 가내촌(현 강정동)의 궁궐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朴用厚, 1978:96). 반면 김태능은 왕자묘를 백백태

23) 『신증동국여지승람』(1530년)「대정현-관방조」에 따르면 가내방호소(현 강정동)에 위치해 있던 관방시설을 1510년 동해방호소(현 회수동)로 이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4) 『고려사』공양왕 4년(1392) 3월 기록 참고.

자의 묘로 추정하고 있는데[25] 그 이유는 묘역이 넓고 치석된 석재를 원거리에서 운반해온 점 그리고 분묘 앞의 이국적인 문관석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金泰能, 1967:437~438).

하원동 왕자묘는 려말선초 분묘중에서 그 입지와 규모를 살펴보면 압도적인 우월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분묘와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김경주·박재현, 2012). 따라서 왕자라는 칭호가 국가의 왕자를 의미하는 것이며 제주지역의 토관세력인 성주, 왕자와는 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金泰能, 1967). 특히 하원동 왕자묘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묘역시설을 완비한 분묘군인데 토관직인 왕자의 무덤이라면 동일한 형태의 분묘가 다수 확인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다.

하원동 분묘는 제주지역 려말선초 무덤중 입지와 규모면에서 가장 우월한 위치에 있으며 원식 건축물이 축조된 법화사와 인접하고 있다. 또한 분묘의 규모와 위계를 보면 2품 이상의 관인에 해당하는데 제주 출신자 중에는 해당자가 없으며 화북동 추정 성주묘와 비교해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위계층 분묘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백백태자 일행은 모두 제주에서 사망하고 원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백백태자가 명나라에 의해 고려 중앙의 관리속에서 제주생활을 영위하였고 조선초기에는 말과 금공품을 헌상하였다는 문헌기록[26]을 참고하면 충분히 위계를 벗어난 묘제축조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요컨대 도내에서 유일무이한 입지와 규모는 물론 이국적인 문인석과 묘역시설을 모두 갖춘 대형 분묘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제주의 토착세력인 성주 혹은 왕자의 무덤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위계가 높은 피장자가 매장되어 있다는 의미가 된다. 하원동 왕자묘는 국가의 왕자직에 위치하며 명으로부터 원 왕실을 보존할수 있도록 탐라에 유배를 보내어 고려조정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다는 문헌자료를 참고한다면 백백태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

25) 김태능은 군산에 위치한 왕자묘가 백백태자의 아들 육십노의 무덤이고 하원동에 축조된 분묘는 백백태자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김태능「남제주군내의고적과고적지」『남제주 통권4호』남제주군 1970, 72-73쪽).

26) 『정종실록』정종 2년(1400) 9월조 기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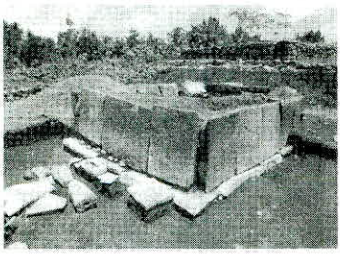

사진16) 하원동 왕자묘 1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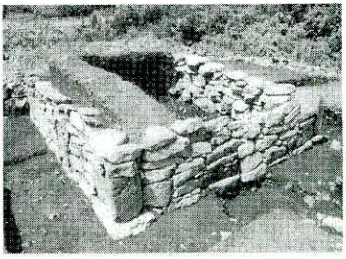

사진17) 하원동 왕자묘 2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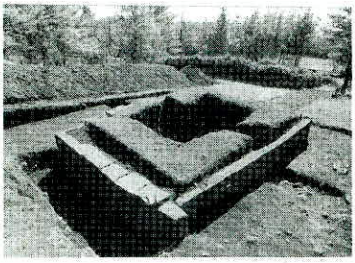

사진18) 하원동 왕자묘 3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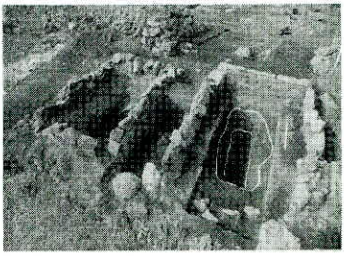

사진19) 화북동 추정 성주묘

한편 왕자묘에 세워진 문인석은 제주의 조면현무암으로 제작되었는바 도내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현존하는 문인석과 형태적 차이를 보이며 또한 육지부의 문인석과도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원동 왕자묘 앞에 세워진 석인상은 제주 토호세력 보다 원나라 왕자의 석인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강윤희, 2012).

하원동 분묘의 묘역시설 규모를 살펴보면 1호와 2호는 관인의 품계가 1품에 해당하나 3호분은 2품으로 조영되었기 때문에 위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주영민, 2005). 하지만 분묘의 축조형태를 보면 1호분과 3호분은 면석형 판석 1매를 세워쌓기 수법으로 벽석을 조영한 반면 2호분은 할석 여러매를 5~6단 이상 눕혀쌓기 방법으로 축조하였다. 분묘의 축조방법에 따르면 1호분과 3호분은 혈연적 관계에 있거나 매장시기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김경주·박재현, 2012). 반면 2호분의 피장자는 1·3호분과 서로 직계존비속 혹은 혈연관계를 벗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시기차 역시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27]. 따라서 1·3호분은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한 백백태자와 그의 아들 육십노의 무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2호분은 이보다 늦은 시기에 조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2) 하원동 왕자묘 묘역시설의 규모(김경주·박재현, 2012)

내용 / 분묘	묘역규묘(㎝)			묘역의 넓이(㎡)	관인의 품계
	장축	단축	높이		
1호분	2100	1500	30~180	315	1품
2호분	2200	1400	80~110	319	1품
3호분	1800	1300	10~50	234	2품

조선시대까지 제주의 일반인들은 무덤이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에는 몽골의 평장법이나 풍장의 영향이라는 견해(김인호, 1997)도 있지만 그만큼 무덤을 축조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제주지역의 성주와 왕자의 무덤 역시 화북동 분묘 정도의 규모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하원동 왕자묘와 같이 2품 이상의 분묘를 축조할 수 있는 인물은 원나라 위순왕의 왕자인 백백태자일 가능성이 높다. 명나라에서 원왕실의 후손들을 인정하여 탐라로 유배를 보냈다면 그 신분이 유지된 셈이며 또한 부마국인 고려에서도 계속해서 그들을 왕손으로 인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말명초 명에 의한 중원지배가 실현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北元이 일정 세력을 형성하고 명과의 전투를 통해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하였다. 원순제는 1368년 수도 대도에서 상도 궁성으로 옮겨 주둔하면서 20여년간 명나라와 대치하였고 국력을 재정비하여 중원으로의 진입을 모색하고 있었다(尹銀淑, 2008:85). 따라서 명의 주원장은 백백태자를 비롯한 원 왕족을 원순제의 피난궁전에 안치하고 보호함으로서 북원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자 했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하원동 분묘는 려말선초 제주지역에 축조된 무덤중에서 입지와 규모면에서 다른 묘제에 비해 매우 우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27) 하원동 발굴조사 보고서를 참고하면 2호분이 1호분의 묘역석을 일부 파괴하고 축조된 점으로 미루어 1·3호분이 선행하고 2호분이 후축된 것으로 추정하였다(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河源洞墳墓群』, 2000.).

왕자묘가 지역 토호세력의 분묘로 보기에는 위계가 너무 높으며 반대로 원왕실의 왕자인 백백태자의 무덤일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주원장이 양왕의 가속과 백백태자 일행을 탐라로 유배를 보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었다는 문헌기록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즉 명나라에서 원의 왕자직을 인정해준 것으로 이해되며 고려 중앙에서도 역시 같은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에 관인의 품계를 벗어난 규모의 분묘 축조가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탐라에 파견되었던 다루가치는 유배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나라로 복귀되었다는 기록이 없어 탐라에서 생을 마쳤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裵淑姬, 2012a:107). 또한 양왕 가속과 북원의 유배인들까지 제주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무덤도 제주지역에 잔존할 가능성이 높다.

Ⅳ. 耽羅 香樟木의 搬出과 元式 建築物의 築造

1. 耽羅 香樟木의 搬出

『고려사』에는 원나라에서 탐라의 香樟木(녹나무)을 요구하는 내용이 몇차례 기록되어 있어 주목된다. 표3)의 문헌기록을 참고하면 원에서 탐라의 향장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미루어 짐작케 한다. 또한 원종 14년(1273)과 충렬왕 9년(1283)에는 직접 사신을 보내 요구하는 것을 보면 당시 원왕실에서 향장목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

표3) 원나라의 제주 향장목 관련 문헌기록

연도	내용	출전
원 종 09년(1268)	탐라에 배 1백척을 건조케 하였다	『元史』
원 종 14년(1273)	원의 사신이 와서 황제의 御床에 쓸 향장목을 요구하였다	『高麗史』
충렬왕 06년(1280)	배 3천척을 짓는데, 탐라에 조칙을 내려 재목을 징벌케 하였다	『元史』
충렬왕 08년(1282)	고려, 탐라, 양주, 천주에서 3,000척의 군선 건조를 개시했다	『元史』
충렬왕 09년(1283)	백자개를 보내와 탐라의 향장목을 요구하였다	『高麗史』
충렬왕 11년(1285)	탐라에서 일본정벌을 위해 만든 배 1백척을 고려에 하사하였다	『元史』

녹나무는 서귀포시 도순동 도순천 일대가 자생지이면서 도내 최대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데 제주도는 분포권이 북한지에 해당한다(제주문화예술재단, 2009:60). 향장목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목재는 결이 치밀하기 때문에 건축재와 선박재료로도 적합하다. 원종 14년(1273) 기사를 참고하면 원황제의 어상을 제작하는데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대 몽골 수크바타르주 옹건섬 타반톨고이 지역 무덤군(1번 무덤)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목관으로 사용된 목재가 향장목이라고 알려져 있다(김한겸외, 2005: 92~93). 제주지역이 북한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에 사용된 목재 역시 제주에서 보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진도 벽파리에서 중국 송·원대의 통나무배가 발굴되었는데 녹나무를 사용하여 축조되었다(朴相珍, 1993). 또한 신안 앞바다에서 인양된 같은 시기의 중국 무역선에서도 선체의 격벽을 녹나무로 만들었다. 반면 서남해안 지역에서 출수된 고선박(12척) 중에서 신안선과 진도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고려시대 한선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소나무로 제작되었다(김응호·차미영, 2014:371). 이로 보건데 원대의 선박은 부분적일지라도 造船과정에서 대부분 향장목을 채택하여 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탐라의 향장목은 가구제작과 어상, 목관 및 선박재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 원왕실에서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향장목의 자생지이면서 최대 군락지인 도순천 일대에 대한 원의 관심은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원간섭기 탐라와 원과의 횡단 항로를 살펴보면 1290년경 제주도~한반도 서안~직고(直沽-대도의 외항, 현 허베이성) 방면의 항로에 13개의 水站을 설치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모리히라 마사히코, 2011:188). 원대 일본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제주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충렬왕 이후에는 양국의 육로와 해로가 완전히 개방되었다. 이에 따라 원과 고려간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원의 경원항과 일본 구주를 왕래하는 무역도 활기를 띠고 있었다(배숙희, 2012b). 제주의 서남부 해안과 포구는 양국을 왕래하는 무역선이 악천후와 같은 기상악화에 대피하거나 식량등을 공급받기 위한 일시적인 정박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이진한, 2014).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따르면 탐라에서 원에 조회할 때 바람을 기다리던 곳으로 홍로천(서귀포)과 서림포가 등장하고 있다. 반면 대포[28] 해안가에서 특수건물지의 주좌각원 주초석이 확인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마도 도내의 대내적 포구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서림포와 서귀포는 원과의 물자수송을 위한 원양항해의 거점 포구였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탐라는 원나라 왕실의 국립목마장이 설치된 최첨단 군수산업기지인 동시에 막대한 무역이권이 걸린 해양 경략의 중심기지적 성격(에르데니 타바르, 2006)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포구는 아마도 당대 국제무역항의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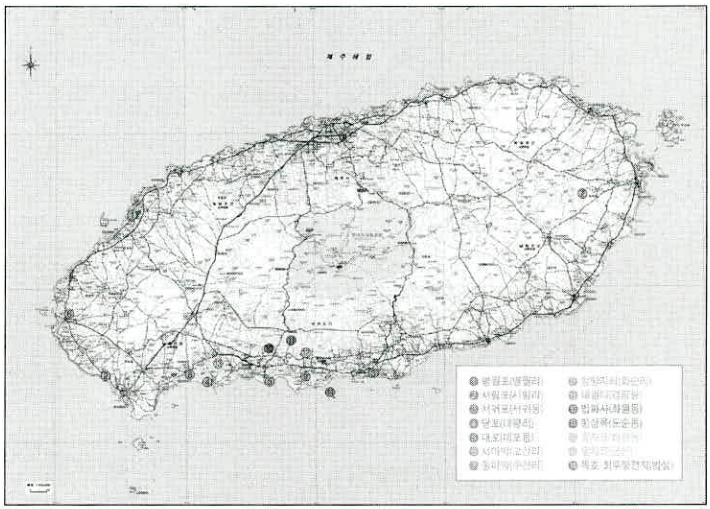

그림 6) 원간섭기 제주도내 원나라 관련 유적 분포도

예컨대 제주에 설치된 국립목마장에서 양육한 말과 함께 향장목을 원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제주 서남부지역의 포구가 이용되었을 것이다. 제주에서 말을 키웠던 국립목마장은 원의 전쟁과 관련된 군수산업기지에 해당하며 향장목 자생지는 원왕실의 가구와 선박 그리고 목관 등 다양한 원자재를 제공했던 물류생산단지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탐라말과 향

28) 「탐라도」(1678~1700)와 『탐라순력도』「한라장촉」(1702)에 따르면 대포와 당포가 달리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 지명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

장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원에서 파견된 관원들이 지속적인 관리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을 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포구는 당연히 서남부지역에 위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탐라에서 원으로의 물류수송과 관련되어 당시 원의 지배세력과 이주민들이 생활했던 중심취락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2. 元式 建築物의 築造

원나라 간섭기에 제주에는 다양한 형태의 원식 건축문화가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에서도 특히 법화사내 특수건물지에 사용된 주좌각원 주초석과 원식기와가 원나라 건축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고고학적 유물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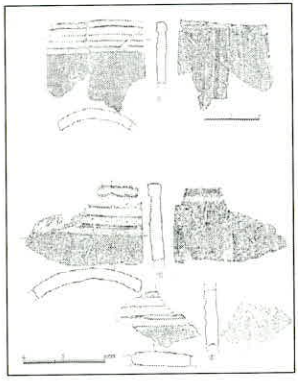

그림7) 법화사지 출토 이형기와

먼저 주좌각원 원형초석은 안산암제로 제작되었는데 산방산과 서귀포층의 상부에 조면암질 안산암이 폭넓게 피복(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되어 있고 강정동 일대에도 분포(문화재청, 2002)하는 점을 고려하면 주변에서 쉽게 채석이 가능했을 것이다.

반면 특수건물지의 지붕에 얹었던 용과 봉황문 막새는 원나라 상도 궁성과 고려 궁성인 만월대에서 유사한 형태가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원식기와를 살펴보면 막새 표면에 포목흔이 없고 평면형태에 굴곡이 2회 이상 확인되면서 역삼각형의 형태를 보인다. 그리고 주연 내측 윤곽에는 凹線이 시문되어 있고 주연의 요선은 와범에 의해 시문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그어진 篦書로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암막새는 明代보다 元代 유행했던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서창호, 2010:169~171). 봉황문과 용문이 장식된 원식기와는 법화사지에서만 유일하게 확인되고 있는데 원의 전문 瓦匠이 직접 제주에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29].

고려시대 봉황문 수막새는 원형의 평면형태이고 평기와와의 접합각도는 90°를 유지하다가 고려후기~조선전기에 접어들면서 90~130°로 변화된다. 용문 암막새 역시 고려후기까지는 역삼각형의 평면형태와 90°의 접합각도를 유지하다가 이후에는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이인숙, 2011: 1368~1371). 법화사지 출토 봉황문 수막새 역시 ㄱ자형 접합기법으로 제작되었는데 13세기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제작기법에 해당한다(이호경, 2008). 하지만 법화사지 출토 막새는 원의 양식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고려기와의 비교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30].

1276년 충렬왕이 공주와 함께 신축할 궁궐터를 둘러보았다는 기록[31]이 확인되고 충선왕 원년(1309)에는 민가를 기와지붕으로 고치고 사적으로 기와굽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하였다[32]. 따라서 14세기 초반부터는 私窯가 크게 증가하고 후반에는 시중에서 목재와 기와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정도까지 이르렀다(이정신, 2007). 또한 고려후기에는 기와 제작과정이 간소화된 작업공정으로 바뀐다. 즉 이와같은 이유로 인해 후기부터는 기와의 제작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토호세력은 물론 다양한 집단의 건축물까지 기와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원대의 연호를 사용한 사찰을 보면 인제 한계사, 광주 삼천사지, 인천 학림사지, 경주 용장사지, 창원 한림사지, 익산 미륵사지, 고창 선운사, 군산 수심부락사지, 서산 보원사지, 연산 개태사지, 청주 목우사지 등이 확인된다. 원나라 연호명와는 대부분 충렬왕 이후에 해당하지만 법화사 출토품은 원종대로 가장 이른시기에 해당한다(홍영의, 2015:69). 그러나 모두 원식기와를 이용한 원식 건축물이 조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화사내 특수건물지인 원식 건축물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

29) 기와는 무게와 수량적 특성상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와장을 파견하여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법을 취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정주, 「高麗時代銘文平기와의 樣相과 地域性」,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69-70쪽.).

30) 법화사에서 출토된 고려기와를 살펴보면 호상의 범자문 암막새(12~13세기)와 연화문 수막새(13세기)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엄기일, 「제주지역 자기출토유적 내 막새에 대한 검토-주요 사찰유적을 중심으로-」,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2013.).

31) 『고려사』 권28 세가 충렬왕(忠烈王) 2년(1276) 6월 기사 참고.

32) 『고려사』 권33 세가 충선왕(忠宣王) 원년(1309) 8월 기사 참고.

법화사는 12세기 중엽경 창건되어 1269년 중창이 시작된후 1279년 완료되었다. 즉 창건 및 중창시기의 건축물은 기단부와 초석이 모두 자연석과 할석형 석재를 이용하여 조성하였다. 또한 건물 지붕에 사용된 막새기와를 살펴보면 대체로 연화문과 범자문 등 대부분 고려양식의 막새기와를 제작하여 축조되고 있다. 평기와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어골문과 복합문 등 동시기 고려기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보건데 법화사지의 가람배치와 관련되어 축조된 건축물은 모두 고려의 건축기술이 동원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법화사내 특수건물지에서 확인되는 주초석은 원나라 상도성에 축조된 건축물의 주좌각원 주초석과 형태상 동일하다. 또한 기단석과 기타 석재 역시 정교하게 가공된 판석형 석재로 일반 건물지와는 차별화된다. 더불어 건물의 지붕에는 운봉문 수막새와 운용문 암막새 그리고 이형기와 등 원식기와가 대부분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기술을 참고하면 특수건물지는 기존의 법화사내 축조된 여타 건물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원나라 건축 기술자들에 의해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진 제주도내 유일무이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특수건물의 지붕에 왕실을 상징하는 봉황과 용문양이 장식된 막새기와를 얹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원왕실과 연관성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원의 이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했던 서남부 지역에 원왕실의 도움으로 중창된 최대 사찰인 법화사 경내 원식 건축기술을 도입한 웅장한 건축물은 결국 원순제의 피난궁전임에 틀림이 없다. 아무튼 원나라 건축 기술자들이 제주에 이주하여 원왕실의 건축문화를 재현한 건물지는 현재 특수건물지가 유일하다. 비록 특수건물지가 훼철된 후 후축된 유구에 재활용되면서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당시 건축기술을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주초석과 석재 가공기술, 그리고 瓦當을 통해 원식 건축문화의 一端을 고고학적으로 살필수 있다.

Ⅴ. 맺음말

삼별초의 대몽항쟁이 소멸된 후 원나라 군사가 주둔하고 이주민이 증

가하면서 다양한 원식문화가 제주에 도입되기 시작한다. 먼저 법화사는 12세기 중엽에 창건되어 13세기 중반까지 최고 전성기였다. 또한 1269년 중창을 시작하여 1279년 완공되었는데 원왕실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법화사내에는 일반적인 건축물과 전혀 이질적인 특수건물지가 축조되었는데 정교하게 가공된 판석형 기단과 주좌각원의 주초석이 사용되었다. 또한 건물의 지붕에는 원나라 양식의 기와를 얹어 조성하였다. 주초석은 주변에 분포하는 안산암질 석재를 가공하였고 막새기와는 원나라 와장이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수건물지는 원나라 왕실건축 기술을 동원하여 조영된 점으로 미루어 원순제의 피난궁전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제주 서남부 지역은 원과의 물류수송을 위한 포구가 위치하며 원왕실의 수요가 많았던 향장목의 최대 군락지이다. 또한 이 지역은 원왕실 후손들의 유배지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활했던 취락과 분묘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강정 대궐터가 바로 원왕실 후손들의 생활 터전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하원동 왕자묘에 대한 위계분석 결과 제주도내 분묘중 유일무이한 최대 규모에 해당하는데 이는 원나라의 왕자 신분이었던 백백태자의 분묘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주 서남부 지역은 원나라의 군수산업기지이자 물류생산단지이면서 원왕실과 이주민들의 거점취락에 해당한다. 또한 원순제의 피난궁전이 축조될 정도로 원왕실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원이 멸망한 후에도 이곳에는 왕실의 후손과 이주민들이 유입되었고 원식문화가 잔존하게 된다. 차후 이들의 생활터전인 취락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진전되면 당시 원나라 이주민들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강윤희, 「조선시대 제주지역 동자석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강창화, 「濟州 法華寺址의 考古學的 硏究」, 『濟州島史硏究』第9輯, 濟州島史硏究會, 2000.

경기도박물관·경기문화재연구원, 2009, 『檜巖寺Ⅲ』.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 2009.

국립문화재연구소, 『개성 고려궁성-남북공동 발굴조사보고서 Ⅰ』, 2012.

국립제주박물관,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2013.

김경미, 「전남지방 고려시대 기와가마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김경주·박재현, 「조선시대 묘제 피장자의 성격」, 『제주 성읍리분묘유적』,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2.

金九鎭, 「麗·元의 領土紛爭과 그 歸屬問題-元代에 있어서 高麗本土와 東寧府·雙城摠管府·耽羅總管府의 分離政策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第7輯,國史編纂委員會, 1989.

김동전, 「조선후기 제주거주 몽골 후손들의 사회적 지위와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13권 2호, 2007.

김영미, 「제주 사지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고찰」,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2013.

김유식, 「선원사지 출토 고려후기 기와의 검토」, 『佛敎美術』17, 동국대학교박물관, 2003.

김응호·차미영, 「영흥도선 선체편 수종분석」, 『인천 옹진군 영흥도도선 수중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4.

김인호, 「濟州島 古墳에 대한 一見解」, 『濟州島史硏究』, 제4집, 1995.

김인호, 『한국 제주 역사·문화 뿌리학(상)』, 우용출판사, 1997.

金日宇, 「고려후기 濟州 法華寺의 重創과 그 位相」, 『韓國史硏究』제119호.韓國史硏究會, 2002.

김일우, 「제주 江汀洞'대궐터'유적의 역사적 성격-고려시대 몽골의 제주지배기와 관련하여-」, 『韓國史學報』제60호, 高麗史學會, 2015a.

김일우, 「제주 항몽유적의 역사성과 문화콘텐츠화 방안」, 『몽골학』제43호, 한국몽골학회, 2015b.

김장구, 「13~14세기 여몽관계에 대한 몽골 학계의 관점」, 『13~14세기 고려-몽

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김정주, 「高麗時代 銘文 平기와의 樣相과 地域性」, 한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金志允, 「原州地域 高麗·朝鮮時代 평기와 硏究」,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金泰能,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 『濟州道』31호, 제주도청, 1967.
김태능, 「남제주군 내의 고적과 고적지」, 『남제주』통권 14호, 남제주군, 1970.
金平允, 「大浦海岸에서 發見한 法華寺柱礎石메모」, 『제주도』 통권제89호, 濟州道, 1990.
김한겸외, 「징기스칸 시대 유물의 종합적 검사 및 해석」, 『징기스칸 시대의 유물 발굴현황과 의미』, 한국학연구소 제6회 국회학술대회 자료집, 2005.
明知大學校博物館, 『法華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1983.
모리히라 마사히코, 「제국 동방 변경에서 일본을 막는다」,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2011.
문기선, 「제주 최초의 석상 조성적 조명 연구 보고」, 『인문학연구』10집, 2003.
문화재청, 『지질·광물문화재 정밀 조사 보고서』, 2002.
바드만양보 어융만다하, 「제주 몽골유적의 건축적 의의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朴相珍, 「진도 통나무배 樹種分析 硏究」, 『진도 벽파리 통나무배 발굴조사 보고서』, 목포해양유물보존처리연구소, 1993.
朴用厚, 『南濟州郡誌』, 도서출판 상조사, 1978.
박원길, 「몽골과 바다」, 『몽골학』제26호, 2009.
박원길·S촐몬, 『한국·몽골 교류사 연구』, 이매진, 2013,
박원길, 「영락제(永樂帝)와 제주도」, 『濟州島硏究』40호, 濟州學會, 2013.
朴鍾鎭, 「충청지역의 고려시대 평기와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朴現圭, 「제주도 法化寺 三尊佛像과 南京 大報恩寺의 관계」, 『중국사연구』제58집, 2009.
裵淑姬, 「元나라의 耽羅 통치와 移住, 그리고 자취」, 『中國史硏究』 第76輯, 2012a.
배숙희, 元代 慶元地域과 南方航路-탐라지역의 부상과 관련하여」, 『中國學報』, 第六十五輯., 2012b.
서창호, 「고려말 조선시대 암막새의 변천과정」, 『고고학』9-1, 중부고고학회, 2010.
엄기일, 「제주지역 자기출토유적 내 막새에 대한 검토-주요 사찰유적을 중심으로-」, 『제주 출토 고려시대 도자기』, 국립제주박물관, 2013.
에르데니 타바르, 「元·高麗 支配勢力 關係의 性格 硏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06.
오상학, 「고려시대 제주 법화사의 역사지리적 고찰」, 『국토지리학회지』제44권 1호, 2010.
原口九萬/姜成培역, 『濟州島의 地質』, 濟州市 愚堂圖書館, 2010.
魏堅, 「元 上都 건축유적의 고고학연구」, 『고려수도 개경과 동아시아 도성 문화』, 문화재청 5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발표자료, 2011.
尹銀淑, 「北元과 明의 대립-遼東 문제를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第105輯, 東洋史學會, 2008.
이인숙, 「고려~조선시대 용·봉황문 막새의 변천」,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30周年 紀念 考古學論叢』,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考古學 叢書 Ⅱ, 2011.
이정신, 고려시대 기와생산체제와 그 변화」, 『한국사학보』제29호, 2007.
이진한, 『고려시대 무역과 바다』, 경인문화사, 2014.
이호경, 「고려시대 막새기와의 제작기법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장남원, 「쿠빌라이시대 고려·원 도자수용의 변화」, 『미술사와 시각문화』8권,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9.
정병삼, 「탐라-불교의 전래와 보급」, 『탐라사Ⅱ』, 제주사정립추진위원회, 2010.
제주문화예술재단, 『화산섬, 제주문화재탐방』, 제주특별자치도, 2009.
濟州大學校博物館, 『法華寺址』, 1992.
濟州大學校博物館, 『法華寺址』, 1997a.
제주대학교박물관,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1997b.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 河源洞 墳墓群』 2000.
주경미, 「쿠빌라이 칸과 대성수만안사의 백탑」, 『미술사와 시각문화』8권,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2009.
주영민, 「高麗時代 支配層 墳墓研究-9~16世紀 墓域施設墳墓를 中心으로」, 『지역과 역사』 17호, 2005.
최문환, 「파주 혜음원지 출토 막새기와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제주도 지질여행-증보판』, 2006.
홍영의, 「고려시대 명문(銘文)기와의 발굴 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연구』제41호, 한국중세사학회, 2015.
С.В.КИСЕЛЕВ외, "ДРЕВНЕМОНГОЛЬСКИЕ ГОРОДА", ИЗДАТЕЛЬСТВО ≪НДУКД≫МОСКВД, 1965.

<그림 및 사진 출처>

그림1) 濟州大學校博物館, 『法華寺址』.

그림2) 濟州大學校博物館, 1997, 『法華寺址』에서 改變.

그림3) 明知大學校博物館, 1983, 『法華寺址 發掘調査 報告書』.

그림4) 明知大學校博物館, 1983, 『法華寺址 發掘調査 報告書』에서 改變.

그림5) С.В.КИСЕЛЕВ외, 1965, "ДРЕВНЕМОНГОЛЬСКИЕ ГОРОДА",ИЗДАТЕЛЬСТВО≪НДУКД≫ МОСКВД.

그림6) 濟州大學校博物館, 1997, 『法華寺址』.

사진1)~4) 국립제주박물관, 2011, 『국립제주박물관 JEJU NATIONAL MUSEUM』.

사진5)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개성 고려궁성』.

사진6) 국립제주박물관, 2011, 『국립제주박물관 JEJU NATIONAL MUSEUM』.

사진7)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개성 고려궁성』

사진8) 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1998, 『耽羅, 歷史와 文化』.

사진9) 賈洲杰, 1977, 「元上都調查報告」, 『文物』5기.

사진10)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法華寺址』.

사진11) 인터넷 : http://blog.daum.net/kangilee/18080210

사진12)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개성 고려궁성』.

사진13) 濟州大學校博物館, 1992, 『法華寺址』.

사진14)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강정동 대궐터 발굴조사 약보고서」.

사진15) 국립제주박물관, 2011, 『국립제주박물관 JEJU NATIONAL MUSEUM』.

사진16)~사진18) 濟州大學校博物館, 2000, 『濟州 河源洞 墳墓群』.

사진19) 제주대학교박물관, 1997b, 『耽羅星主高鳳禮墓推定址』.

Abstract

Study on Yuan Dynasty and Tamla(耽羅) Based on Archeological Materials

Kim Gyeong-ju*

After the Sambyeolcho Rebellion was suppressed by the Goryeo and Mongol Yuan dynasty in 1273, Mongolian style was introduced to Jeju as Yuan cavalry started to be stationed in Jeju and massive number of Mongolian officials and stock breeders came to the island.

Goryeo began rebuilding Fahua(法華) Temple in 1269 and the construction was completed in 1279 with a help of the Yuan Palace. Yuan benefited from its intervention in the rebuilding. The temple was a religious place to successfully conquer the Southern Song Dynasty and Japan.

There is a very unusual structure decorated with delicate stones and Mongolian roof tiles in Fahua Temple. Mongolian architects came to the island and they built the structure in Mongolian architectural style. It is assumed that it was used as a place of refuge of the 11th Emperor of the Yuan dynasty. The roof tiles made by Mongolian tile makers have patterns of dragon and phoenix and they were the symbols of royal palaces.

There was a port used to ship logistics between Jeju and Yuan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island. The largest colony of camphor trees

* Assistant Director of Je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that were in great demand from Yuan palaces grow near the port. The area was also known as a place of exile for Mongolian immigrants and descendants of Yuan royal families. Therefore, the palace site in Gangjeong(江汀) and neighboring areas could be their homes and the royal tombs in Heyuan(河源)-dong could be the prince Bai bai(伯伯太子), a son of the prince Weishun(威順王) and his followers.

The southwestern part of Jeju where Fahua Temple is centrally located was a place to transport and manufacture war supplies for Yuan's territorial expansion wars. Mongolian immigrants settled down and the palace for the 11th Emperor of the Yuan dynasty was built in the area. After Yuan dynasty collapsed, descendants of the dynasty were exiled and Mongolian immigrants came to the island, archaeological Mongol culture had remained in Jeju for a long time.

Key Words : Mongol culture in Jeju, unusual structure, The prince Bai bai(伯伯太子), a son of the prince Weishun(威順王), stronghold settlement, palace sites.

교신 : 김경주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2길 3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E-mail : tamra1000@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 04. 28.
심사완료일 2016. 06. 10.
게재확정일 2016. 06. 13.

일반논문

1831년 『군정성책(軍丁成冊)』을 통해 본 전라좌수영의 군정과 군관
- 순천부 사례를 중심으로

김경옥

전후초기 중국 동북지역 적산처리를 둘러싼 중미소의 갈등

정형아

현공 윤주일의 〈제주선경가(濟州仙景歌)〉 연구

윤용택

『남사록(南槎錄)』에 나타난 청음 김상헌의 교육적 태도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강동호

문화성향이 기부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 개인기부자를 중심으로

서영숙

이어도 논쟁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 중국어 자료에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중심으로

주민욱